

국민학교 음악과 교과서의 분석 연구

김 정 순

(本會理事)

〈목 차〉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 연구의 내용

C. 연구의 방법과 절차

D. 연구의 범위 및 한계

II. 이론적 배경

A. 20세기 음악교육의 중심

사조와 지도내용

B.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의
기본방향

C. 교과서 내용의 일반적
평가기준

III. 교과서 분석

A. 교과서 내용과 분석 범위

B. 분석의 결과 및 해석

IV. 결론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서는 계획된 교수 학습 활동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맞추어 편찬된 기본적인 교재용 도서로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자료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교육사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왔으며, 특히 경험중심의 교육관이 대두되면서부터는 그 역할이 과거의 교과중심 교육에서와 같이 절대시되지 못하고 다만 학습활동과 연계되어서 기능하는 하나의 자료적 성격을 띤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교과서의 의미가 그와 같이 변화되어 왔을지라도 그 자체는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이 진술되고 조직 편찬되는 것임으로 역시 단순한 자료집의 성격만을 지닌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학습활동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이나 그 근본적인 역할에는 변화가 없었다. 특히 근래의 학문중심적 교육론에서 보면 교과서에는 새로이 그러한 자료의 해석을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방식의 제시라는 임무가 부과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¹⁾

1) 李 洪 雨(1977), 『教育課程研究』, (서울:傳英社).

韓國教育開發院(1979), “教科書觀의 變化”, 『教科書構造 改善에 관한研究 -國民學校를 中心으로-』, 연구보고 109집, (서울:韓國教育開發院), pp.31-34.

洪雄善(1979), “教科書의 役割과 機能”, 韓國教育開發院(1979) 附錄, pp.1-10.

李弘守(1988), “국민학교 음악 교과서 내용의변천 및 개선방안 탐색”, 『音樂教育研究』 第7輯, pp.4-6

교과서는 그간 학습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한 개선이 요청되어 왔으며 그를 위한 분석 검토가 여러모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 과목의 다른 교과서를 횡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국정 단일본으로 되어있는 국민 학교의 교과서에 관한 검토는 주로 외국 교과서와의 대비에서 이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²⁾ 그로 인하여 교과서 편찬은 체제면에서나 내용면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이 분명하나 교과서가 지닌 좀더 직접적인 의미인 교육과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의 확인 검토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교육과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학습의방향과 내용을 전제로 국민학교의 음악교과서를 분석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각 교과는 나름대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음악과는 그 성격이 보다 두드러진 면이 있다. 그것은 음악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내면적 논리성에 기초하는 하나의 지식체계일 수 있으면서도 그 본질은 그와는 전혀 다른 직접적이고도 감동적인 심미적 경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학습에서의 기준 교재인 교과서 또한 음악과의 경우는 좀더 각별한 편집이 요청되는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러한 연유에서 음악교과서를 그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았다.

교과서의 검토는 물론 당해 교과목 자체와 그 교육에 관한 깊은 학문적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본고 역시 기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시각에서 그간의 음악교육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자체는 일면 그러한 학문적 기초위에 설정된 교육과정의 실현을 위해 그 교과 내용을 교재화하고자 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편찬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편성하는데 있게 된다. 이에 본고 또한 그 검토의 직접적인 대상은 주로 그러한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및 진술에 관한 문제에 두어지게 된다.

B.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현행 국민학교 음악과 교과서를 특히 교육과정의 실현이라는 시각에서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 실제의 실행인 학습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직접적인 연구과제는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학습의 구조와 그를 위한 자료제시의 면에서 결정지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2) 韓國教育開發院(1979).

金冕世(1986), “韓・日・中 音樂科 教材分析에 따른 指導方向探索 -國民學校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公州敎大論叢』第22卷 第1號, pp279-295.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에 제시된 구체적인 지도내용과의 부합성
2. 음악의 기본개념과 고유개념 및 그 구조적 이해에 관련된 내용분석
3. 음악 학습의 기본적 자료인 제재곡의 분석

C.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현행 국민학교 음악교과서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습의방향과 그러한 교육과정의 설정에 기초가 된 학문적 이해에 기초하여 그 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진술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실제에 있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설정의 학문적 배경과 교과서 편찬의 제조건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였으며 이어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일별 대비하는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양자의 부합성, 음악의 기본개념과 고유개념 및 그 구조적 이해, 그리고 학습자료로서의 제재곡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그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이론적 배경에 관한 접근

가. 음악교육의 새로운 인식과 방법론에 대한 검토

현행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및 음악과 학습활동의 본질의 이해를 위한 학문적 기초로서 20세기 음악교육의 중심사조와 지도내용의 변화를 일별함으로서 음악의 본질과 그 교육적 특성 그리고 그에따른 음악방법론의 신경향을 파악하여 본다.

나. 국민학교 음악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

위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론의 이론적 기초 위에 그간의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교과서의 개편 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현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본다.

다. 교과서 편찬의 제조건에 관한 검토

교과서 편찬의 외적 내적 제조건을 살펴보고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과 분야에 결부하여 분석의 기준과 그 세부사항을 추출 정리하여 본다.

2. 교과서 분석

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비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요소와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봄으로서 그 부합성을 알아보았다.

나. 음악의 제개념에 대한 학습내용의 분석

교과서에 제시된 기본개념과 고유개념 및 그 구조적 이해에 관한 학습내용을 내용조직면에서 분석하여 그 체계성 균형성 계열성을 알아보았다.

다. 제재곡 분석

학습 소재로서의 제재곡을 학습내용과 결부하여 내용조직의 면에서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 부합성 체계성 균형성 계열성을 알아본다.

D. 연구의 범위 및 한계

본 연구는 그 직접적인 목표를 음악과의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계되는 교과서의 역할 분석에 두고 있음으로 대략 다음과 같은 범위와 한계를 지니고 실행되었다.

1. 분석 대상

국민학교 전학년의 음악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 통합교과서를 사용하는 1, 2학년의 경우는 음악교과에 해당하는 학습내용만을 분리하여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 기준

분석기준은 대체로 내용의 조직성에 주안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 외의 평가 기준도 연결하여 적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 20세기 음악교육의 중심사조와 지도내용

음악과 그 교육에 관하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한 수준의 학문적 이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가 크게 심화된 것은 대체로 근대기에 이르러 인간 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육이 크게 일반화되어 가던 과정에서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진보주의 교육이념의 대두와 더불어 고조되었던 미국학계의 연구는 음악의 본질로부터 그 교육적 가치 및 교수학습방법에 걸쳐 팔목할만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그것은 대체로 교과중심에서 경험중심, 학문중심으로 전환되어 가던 근세기 교육의 중심 사조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으로 특히 음악교육을 주축으로 하여 그 성과를 요약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새로운 본질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근거가 제시되는 가운데 보통교육의 단계에서 음악교과의 정착이 보다 확고해졌으며, 그러한 기초위에 다시 고도한 기술 정보시대로의 사회적 발전에 부응하여 포괄적인 음악교육이 제창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접근 이론이 정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음악 전반에 걸치는 지도내용의 확대를 보게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그와 같은 근세기 음악교육의 중심사조와 그 지도내용면에서의 변화를 순차로 개관하여 보기로 하겠다.

1. 음악교육의 새로운 인식

음악교육은 기본적으로는 음악이 지닌 인간 생활에서의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간교육의 의미가 발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음악교육은 오랜동안 도덕심, 신앙심, 애국심의 함양등 주로 시대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음악 외적 목적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근대기에 이르러 일반적인 인간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교육이 크게 확산되고 음악이 그 중심교과의 하나로 등장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러한 종래의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 스잔 랭어(Suzanne Langer), 존 듀이(John Dewey) 등에 의해 시작된 일련의 음악교육과 관련한 철학, 미학, 심리학,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성과는 곧 그러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이시기 크게 대두되었던 경험중심 학습이론과 일정한 관계를 지니며 이루어졌던 것으로 음악과 인간의 삶의 본질 및 심미적 경험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크게 심화시키는 것이었다.³⁾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왕의 음악교육의 도구주의적 관점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전인적 교육에 있어서의 음악교육의 당위성에 그 내재적 가치에 기초하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를 통하여, 음악 자체가 지닌 미적 본질을 전제로 하는 심미적 음악교육은 곧 본질적으로 신체적, 지적, 도덕적 속성과 더불어 심미적 속성을 지닌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함에 유효한 것임이 입증되어 갔던 것이다.⁴⁾ 그리고 그것은 곧 음악교육 그 자체가 인간교육에 가치로운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교육에서의 음악교과의 위치를 새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음악교육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는 다시 1950년대 말부터 이른바 스트프닉크 충격으로 대두되었던 과학, 수학등의 증시 경향으로 출시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자극되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음악교육은 오히려 내용면에서의 구체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를 통하여 포괄적 음악교육의 제창과 더불어 인간교육에 있어서의 음악본유의 가치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더욱 심화 정리되어 갔다. 예컨대 음악교육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통합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말콤 타이트(Malcolm Tait)와 폴 하크(Paul Haack)의 경우에서와 같이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융합되는 음현상의 제속성과 그에 대한 인간의 내면적 인식과의 상관관계가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정리되었다.⁵⁾ 그리고

3) 安美子(1988), “기술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역할” 「論」 제53집,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p.316.

이흥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세광음악 출판사), p.56-60.

4) 이흥수(1990), pp. 96-110.

5) 이흥수 앞 글, pp.66-67.

그러한 그간의 연구들은 음악교육이 인간교육에서 필수적 교과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음악교육의 실체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2. 포괄적 음악교육

20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졌던 위와같은 음악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경험중심 교육이론과 함께 그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도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시기 이후 음악교육은 종래의 독보중심에서 아동중심 흥미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로 가창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상황에서 벗어나 음악의 제 영역을 고루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변화에 후속하여 그 교육의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1954년 미국 음악교육자 협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MENC)는 기본개념위원회(Commission on Basic Concepts)를 발족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음악교육의 방향이 모색되기에 이르렀다.⁶⁾

그러나 이러한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시사한 바 1950년대 말부터 일반적인 교육의성향이 특히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과 정보사회에 대처하고자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선회함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 연구의 폭이 음악교육 전반에 걸쳐 크게 확대되었으며 일련의 계획된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어 갔다. 즉 젊은 작곡가 프로젝트(Young Composers Project, 1959-1962), 현대음악 프로젝트(Contemporary Music Project: CMP, 1963-1973), 탕글우드 심포지움(Tanglewood Symposium, 1967), 예일 세미나(Yale seminar, 1963), 고 프로젝트(Go Project, 1969-1970)등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종래의 미국 학계의 연구성과는 물론 자크 달크로즈(jaques Dalcroze), 줄탄 코다이(Zoltan Kodaly), 카알 오르프(Carl Orff) 등 유럽의 음악교육가의 이념과 방법 또한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포괄적 음악교육'이 제창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이후 음악교육에 주조를 이루었던 것이다.⁷⁾ 포괄적 음악교육이란 곧 음에 대해 감각적으로 지각 반응하며 지적으로 분석 이해하고 음을 창조적으로 조작 표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음악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

-
- 6) 成敎姬 (1986), “國民學校 音樂科 教育課程 國際動向研究”, (韓國教育開發院), pp.20-22.
 최시원(1987), “미국 음악교육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 『延世論叢』第23輯, (延世大學校 大學院) p.164.
- 7) 成 敎姬 (1986), pp.20-23.
 안미자(1986), “음악교육 개선을 위한 세가지 시도 -Yale Seminar, Tanglewood Symposium, Rockefeller Panel을 중심으로-”, 『論叢』, 第51輯,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pp.111-125.
 최시원 (1987), pp. 159-175.
 이흥수(1990), pp.372-393.

는 음악교육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그 교육의 실체에 있어서는 음악의 본질을 이루는 기본개념과 고유개념 및 그 구조의 이해, 모든 시대 양식 및 종류의 다양한 음악의 학습, 제영역의 음악적 기능의 발달과 음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및 가치관의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학습방법에 있어서는 지도내용의 확대 구조화가 요구되고 통합적인 음악체험이 중시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포괄적인 음악성의 계발을 목표로 하는 음악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이 완벽을 기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음악교육은 그를 실천함에 있어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다각적인 학습방법의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며 그에 관한 연구 또한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맨해튼빌 음악과 교육과정 프로젝트(Manhattanville Music Curriculum Project:MMCP, 1965-1968)를 통하여 종래의 경험중심교육이론에서 이루어졌던 발견학습의 원리와 이 시기 학문중심 교육이론에서 중심을 이루었던 개념적 접근법을 적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교육과정 시안에서 제시된 나선형의 학습모형은 널리 참고 되는 연구성과의 하나이다.⁸⁾

3. 지도내용의 변화

위와같은 금세기 음악교육의 새로운 경향은 결과적으로는 종합적 음악성의 계발을 위한 총체적인 음악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전개 되었던 것으로 그에 따라 그 지도내용의 면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종래 음악교육은 오랜동안 그 실체에 있어서는 대체로 가창중심으로 주어진 제재곡을 익히는 데 목표를 두어왔다. 그러나 경험중심의 교육이론의 대두와 더불어 아동중심의 음악교육이 시도되면서 지도내용은 기악, 작곡, 감상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제재곡 또한 기본적인 의미가 학습의목표에서 수단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제영역의 학습을 위한 자료제시라는 면에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다시 모든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음악의 요소와 행위를 학습 또는 경험함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음악교육을 지향함에 이르러서는 그 범위가 음악 전반에 걸치는 상황으로 진전되었던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포괄적 음악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악곡과 음악의 제 요소 및 구조, 표현및 감상원리와 방법, 그리고 음악적 태도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그러한 음악교육의 지도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그 주안점이 그 대상의

8) 김 리나(1982), "MMCP의 원리와 학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성경희(1985), "국민학교 음악과 수업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교육육개발원 연구보고, pp.14-20.

이 홍수(1990) pp.384-393.

범위보다는 오히려 여하히 그 대상을 선정하며 조직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점은 특히 위에서 언급한 맨해튼빌 음악 교육과정 연구계획의 나선형 교육과정의 제시에서와 같이 학문중심 학습이론의 구조적 접근법의 영향하에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략의 방향이 설정되어 왔다. 그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요점들을 정리하여 보면 우선 그 지도내용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그를 위하여 음악의 중요한 요소와 원리 및 개념들과 음악적 기능들을 결정하고 그를 아동의 해당 학년 수준의 음악적 체험과 관련지어 제시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재곡으로서의 악곡의 선정은 그러한 지도 내용에 적합성, 그러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술성을 위시한 유용성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형식, 시대, 문화등을 달리하는 모든 음악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⁹⁾

B.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국민학교의 음악교육은 1954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성문화하여 제시되는 기본 계획안으로서의 교육과정과 그에 준하여 편찬된 기본 학습자료인 교과서에 의거하여 실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보아 대체로 당초의 속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평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새로운 음악교육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면서 현행 제5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네차례의 개정을 보았으며 그를 통하여 그 교육의방향과 내용이 재조정되어 왔다. 바꾸어 말하자면 금세기 음악교육의 세계적 사조에 발맞추어 점차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본유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생활중심 음악교육 그리고 다시 포괄적 음악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갔으며 그러한 방향에서 현 국민학교 음악교육 또한 그 지표가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그러한 그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정방향을 개관하여 보겠다.

1.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1955년 처음 제시된 후 제5차에 이르기까지의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반적인 면에서 볼때 대체로 그 교과목표는 음악 본유의 가치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요구로서의 인격형성에, 지도내용은 음악의 원리적 이해보다는 행위와 수단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속성이 유지되면서도 또한 매번의 개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과 더불어 음악교육의 새로운 학문적 성과에 대처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9) 성경희(1985), pp.7-22.

이홍수(1990), pp.125-143.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서 특히 학문적 성과의 수용면을 보면 대략 제 3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하여 일전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즉 제 3차까지는 주로 경험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제 3차부터는 학문중심 내지는 포괄적 음악교육 지향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개념상 제 1차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으로 제 2차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제 1차의 경우 학년별 지도내용에서 가창 기악 감상 창작과 더불어 음악의 생활화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교과의 조직에서도 생활중심의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보면 이미 다분히 당시 진보적 교육 사조인 아동중심의 경험중심 교육이론에 근거하는 생활중심의 음악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 2차의 경우는 학년별 지도내용에서 음악의 생활화를 삭제하고 있으나 나머지 각 영역에서 아동의 자주적 경험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 보다 본격적인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3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그 성격과 내용면에서 보다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경우 흔히 학문중심 교육과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다분히 그러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그 일반적 목표에서 기초적 능력이 포함되고 학년별 지도내용도 이왕의 제영역에 음악적 감각과 태도 등에 관한 영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음악성 창조성 음악 요소등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는 1960년대 이래의 새로운 교육사조이었던 학문중심 교육이론과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루어졌던 포괄적 음악교육론을 크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후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그러한 성향을 한층 강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인다. 제 4차의 경우 그 영역을 기본능력(음악 요소별), 표현능력(가창 기악 창작) 및 감상능력으로 나누고 있으며 개념적 접근 방법, 학생중심의 경험학습, 창의적 음악활동 등을 강조하고 음악의 심미적 체험을 그 학습의 핵심으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포괄적 음악교육을 지향함을 보다 뚜렷이 하고 있다. 제 5차의 경우는 대체로 제 4차와 동일하나 예컨대 그 소목표의 내용이 표현(음악적 감각 및 표현능력), 감상(음악의 이해 및 태도)으로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면 교육과정 자체의 정돈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특히 제 3차 이후는 음악성의 제발과 심미적 음악 체험이 강조됨에서 감지되듯이 점차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 본연의가치가 주목되고 있음이 유의된다.¹⁰⁾

10) 정세문(1982), “음악과”, 『국민학교 교육과정해설』(서울:교육과학사), pp. 320-362.

이 (1987), “韓國 學校 音樂教育의 歷史의 背景”, 『論文集』, 第20輯, (서울 教育大學), pp. 388-397.

문교부(1987),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국민학교 교육 과정 해설』, 서울:문교부).

이흥수(1988), pp. 3-22.

2. 교과서의 개편 방향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음악 교과서는 1957년 제 1차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이래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역시 네번의 개편을 보아 왔다. 그간의 편찬 상황을 보면 줄곧 국정 단일본으로 되어 왔으며 제 3차까지는 각학년이 모두 단독 교과서로, 그리고 제 4차부터는 1,2학년의 경우는 체육, 미술 교과와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교과 속에 포함되어 편찬되고 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그 기본적인 편성에는 거들된 개편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1,2학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학습단위의 편성체제는 시종 체재곡별 단위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체재곡의 계절성과 난이도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내용면에서도 대체로 가창을 중심을 기악, 감상 등이 첨가되는 기능 위주의 편성이 지속되는 감이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여러모로 개정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상의 변화된 측면에서 보면 그 개편의 의미 또한 위에서 본 새로운 음악교육의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면서 이루어졌던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일치함이 나타난다. 음악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4영역의 경우 대체로 가창활동이 주를 이루고 기악과 감상 부분이 상대적울 위축되고 있으며 창작의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개편을 거듭하면서 다소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개의 음악요소에 관한 이해나 종합적 음악체험을 위한 내용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교과서의 경우 이러한 내용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기본 체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면 교육과정의 새로운 구상이 현장학습에서 실행됨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이 감지된다.¹¹⁾

C. 교과서 내용의 일반적 평가기준

교과서는 기본적인 학습자료를 서책으로 엮어놓은 것이다. 따라서 그 중심은 물론 자료내용에 있으나 그것이 하나의 서책으로 꾸며지기에는 일반적인 도서 출판에 있어서의 제 요건과 내용의 교재화에 있어서의 제요건등 다양한 부대 조건이 수반된다. 그리고 그러한 요건들은 학습자료로서의 교과서의 총체적인 의미에 흠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지도내용인 각 교과목의 본령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교과서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곧 좋

11) 李 妍熙 (1987). pp.397-399.

이홍수(1988).

은 교과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핵심 평가기준이 되며 또한 분석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그러한 교과서 편찬의 일반적 요건들을 음악과의 지도내용에 결부하여 정리하여 보겠다.

1. 내용면에서의 일반적 기준

그간 우리나라의 교과서도 물론 위와 같은 제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편찬되어 왔다. 그러나 국민학교의 경우 교과서가 편찬의 단일본이라는 점에서 오는 타성은 그러한 문제를 다소 홀시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에 제3차 교과서 개편에 즈음하여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하여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강우철에 의해 교과서 평가를 위한 일반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점들이 크게 외적 기준,

내적 기준, 편찬기준으로 분류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¹²⁾ 그 기준 항목을 일괄 전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외적 기준 - 저자, 표지, 분량, 판형, 지질, 색도, 서문과 범례, 활자, 편집, 제목달기, 운문, 색인, 제본

내적 기준 - 내용 선정 - 진실성, 정확성, 보편성, 편파성

내용 진술 - 간결성, 창의성, 구체성, 흥미성, 통일성

내용 조직 - 부합성, 체계성, 균형성, 계열성

편찬 기준 - 도입과정, 학습문제제기, 탐구과정, 학습할 보충자료, 삽화

외적 기준은 직접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출판에 관한 항목이다. 내적 기준은 교과 내용 자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대체로 교과 내용을 지식의 체계로 간주하고 주로 사회 교과와 과학교과를 전제로 한다는 단서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편찬 기준은 대체로 학습과 관련되는 내용의 전개에 관한 사항과 보충자료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그 모든 항목은 다시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과서 편찬의 일반적인 제조건이 총망라되었다고 하여 좋을 것으로 물론 음악교과의 특성상 세부 내용면에서는 다소간에 걸맞지 않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음악 교과서의 경우 또한 일단은 참고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다.

2. 내용면에서의 기준

위에서 교과서의 일반적 평가기준에 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그중 특히 교과 내용 자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내적 기준의 제항목들이다. 그런데 이 경우 극히 일반적인

12) 康 宇哲 (1979), “教科書 評價基準”, 『教科書構造 改善에 관한 研究—國民學校를 中心으로—附錄』, 韓國教育開發院, pp.33-46.

것이어서 항목상으로는 음악 교과서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 자신도 언급하였듯이 사회과학과 과학학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것임으로 예술교과인 음악과에도 적용하기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많은 부분 수정을 요하는 면이 있다.

예컨대 음악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아닌 악보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내용이 체험행위를 우선하여 이루어짐으로 그를 서책으로 전달함에는 많은 경우 악보와 더불어 삽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 내용이 그러한 음악과의 특성에 맞추어 변의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의 중심 소재인 악곡은 제구성요소가 결합된 통일체이며 미적 속성을 지니는 예술작품이다. 그러므로 그 선정에 있어서는 그 내포한 구성요소의 적합성 예술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위의 평가기준에서 특히 본고의 주안점이 되고 있는 내용면에서의 악곡의 선정과 지도내용의 조직에 관한 분석 검토에 참고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여 세부적인 사항과 함께 조정 제시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내용 선정 — 적합성(지도내용에)

보편성(악곡의 예술성, 타당성, 전이성에서)

내용 조직 — 부합성(교육과정, 학생과 교사, 지도내용의 구조화에)

체계성(학문적 계열, 교과계열, 교수학습체계에서)

균형성(단원분량, 학습소재간의)

계열성(학년간 교과내용, 단원간의)

III. 교과서의 분석

A. 교과내용과 분석 범위

1.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¹³⁾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법에 의거 1987년 개정 고시된 것이며 1,2학년은 1989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4-6학년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음악교과와 관련하여는 1,2학년과 3-6학년이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다. 1,2학년은 체육, 미술과 더불어 통합교과로서 '즐거운 생활'로 운영되며 3-6학년은 단독교과로 '음악과'로 운

13) 문교부(1987),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그중 음악교과와 관련되는 1, 2학년의 '즐거운 생활'과 3,4,5,6학년의 '음악과'의 내용은 전문을 본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전제하였다.

(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문교부).

정세문(1987), "음악과",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과학사), pp.301-331. 참조

영되고 있다.

그 교과목표를 보면 3-6학년의 ‘음악과’의 경우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음악의 체험을 통하여 음악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을 길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한다.

1) 악곡의 구성요소에 대한 감각을 계발하며, 개성에 따라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악곡과 연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음악을 애호하며 즐기는 태도를 기른다..”

즉 ‘음악체험→음악성계발→정서와 창조성 계발→인격형성’의 방향에서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인 소목표는 ‘음악적 감각과 표현능력’과 ‘음악의 이해와 감상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각 학년별 목표를 보면 서로 문구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위의 교과목표의 소목표와 동일하다.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을 보면 그 교과목표에 있어서는 위의 ‘음악체험’과 ‘음악성 계발’의 부분이 ‘놀이중심의 학습’, ‘운동능력 기르기’로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소목표나 학년목표의 음악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역시 표현능력과 감상태도를 기르는데 두고 있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학년의 교과 내용을 보면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음악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기본적으로는 ‘표현’과, ‘감상’ 두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그리고 3-6학년의 ‘음악과’의 경우는 다시 중학년과 고학년간에 문구상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같은 내용의 세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개진하고 있다.

표현 - 악곡의 구성요소 감지 표현, 개성에 따른 표현, 체험하기

감상 - 음악의 감각적 파악, 음악의 종류와 연주형태에 따른 이해, 악기의 음색과 그 음악감상

구체적인 내용은 학습활동 내용을 열거한 것으로 전학년이 대체로 리듬, 가락, 화음, 빠르기, 강약, 음색, 형식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행위 개념 이해, 감지, 표현과 결부되어 진술되고 있다. 그리고 그 말미에는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이 제시되어 있는 바 특히 위의 내용과 관련이 큰 지도상의 유의점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표현과 감상영역의 통합학습
- 2) 음악의 본질적 특성에 입각한 학습(실음 창의성 중시)
- 3) 기악은 앙상블의 음악적 가치 중시
- 4) 전학년 전영역의 창조적 표현활동 중시
- 5) 전통음악의 각 영역 학습에의 충분한 적용

2. 현 음악과 교과서의 구성 내용¹⁴⁾

현재 사용되는 국민학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1-3학년용은 1989년에, 4-6학년용은 1990년에 출간된 것이다. 음악교과와 경우 1,2학년은 통합교과로서 '즐거운 생활'이라는 제하에 체육, 미술과 함께 포함되어 매학년 1,2학기 2책으로 편찬되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단독 교과로 '음악'이라는 제하에 매학년 1책으로 편찬되었다. 책의 크기는 전학년이 46배판으로 같고 쪽수는 1,2학년은 100쪽 내외로 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3-6학년은 모두 64쪽으로 같다.

내용 구성을 보면, 1,2학년은 기본적으로 학습주제별 통합단원 배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단원마다 체육, 미술에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음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음악과 관련된 내용만을 보면 우선 각책이 모두 표지 안쪽에 애국가를 수록하고 있으며, 본 내용에서는 단원마다 그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1곡의 제재곡이 제시되고 그와 관련한 음악의 요소나 행위에 관한 학습내용이 삽화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각 책에 2,3회정도 감상에 관련한 곡명과 안내가 실려 있다.

3-6학년의 경우는 각책의 표지 안 양쪽에 의식곡을 수록하였는데 3학년은 애국가만을 실었고 4학년부터는 애국가와 더불어 학년마다 다른 의식곡 2곡씩을 실고 있다. 그 다음의 마주보는 두쪽에는 목차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처음은 '차례'라는 제목아래 제재곡명을 순서대로 나열하였으며 다음은 '음악감상'이라는 제하에 그 제재곡명 또는 내용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다시 '즐거운 노래와 합주'라는 제목으로 후미에 있는 참고곡명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의 편제는 모두 목차에서 나타나듯이 대체로 표현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주내용과 감상, 그리고 참고곡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그 편제의 중심축은 기본적으로는 역시 이전의 교과서와 같이 주제의 계열성 내지는 난이도를 고려한 제재곡별 단위 배열식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그와 함께 감상부분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참고곡은 모두 모아서 매책의 뒷부분에 수록하고 있으며 뒷 표지 안쪽에는 각책이 모두 악기연주의 모습에 관한 사진 자료를 실고 있다. 음악의 제요소나 체험행위와 관련한 학습내용은 감상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각 제재곡과 관

14) 문교부(1989), 『즐거운 생활』 1-1,2 2-1,2, (서울:국정교과서주식회사).

----- (1989), 『음악』 3,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1990), 『음악』 4 5 6,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198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즐거운 생활』 1-1,2 2-1,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198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1990),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4 5 6,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참조.

련하여 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며 참고곡에는 별다른 내용이 첨가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의 서술과정에서는 다시 참고가 될만한 악곡 또는 부분적인 악보가 있고 일반적인 삽화 외에 많은 해설용 사진과 삽화가 이용되고 있다.

이제 이상과 같은 편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학습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 1) 학습은 기본적으로 제재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2) 학습의 진행은 크게 표현과 감상영역으로 나누어진다.
- 3) 제요소의 학습은 위와같은 학습의 구조내에서 실행한다.
- 4) 학습 자료는 참고곡을 통하여 확대한다.

3. 분석 범위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음악과 교과서의 분석 검토에 직접적인 전제가 되는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 자체의 내용 편성에 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양자의 연결선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자의 영역별 구분은 일치되나 구체적인 내용 개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악 자체의 성질이 그러한 것이지만 교육과정의 경우 음악의 기본요소와 행위가 복합되어 진술되고 있으며, 교과서의 경우는 학습의 소재가 기본적으로 제재곡 자체이거나 그를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은 대체로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하여 실행하였다.

- 1) 분석의 항목은 음악자체의 구성요소인 제 기본 개념과 행위 요소인 고유개념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 2) 분석의 실제에 있어서는 제재곡에 포함된 위의 제 항목의 요소와 진술되고 있는 지도내용을 주대상으로 한다.
- 3) 제재곡은 학습에 중심이 되는 주제제곡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분석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우선 양자의 내용상의 대조에 두고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음악교육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포괄적 음악교육의 지향이라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조직적 선정 제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 선정의 적합성, 보편성과 조직면에서의 부합성, 체계성, 계열성, 균형성 등을 살펴보았다.

B. 분석의 결과 및 해석

1.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비교

현행 국민학교 교육과정은 음악과의 경우 3학년에서 6학년까지만 단독 교과로 설정되어 있으며 1,2학년은 체육, 미술과 함께 통합교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음악만을 분리하여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된 상황을

〈표 1〉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예

영역/학년	3	4	5	6
〈표현〉				
악곡의 구성 요소	다장조의 주요 화음 듣고 가 리기	당김음 해설 점점느리게 기호	점점느리게 기호 점점빠르게 기호	사장조 가락 들 고 가리기 사장조 가락 들 고 가리기 바장조 사장조 주요화음에 의 한 마침꼴 합창
개성에 따라 창 조적으로 표현 하기			가사에 대한 가 락지어 표현 4마디 리듬 지 어넣기	민속풍의 가락 지어적기
체험하기	듣고부르기 재제곡 안내		2부합창곡 부분3부합창곡	
〈감상〉				
음악의 의미 감 지		음악이 전체 호 틈을 느끼며 이 에 맞는 신체표 현안내	주선율과 반주 부의 관계감지	주선율과 반주 부의 관계감지
악곡의 종류와 연주형태에 따 른 음악미에 흥 미느끼기	감상용 성악곡	감상용 춤곡 합 창곡 단순 성악 곡 독주곡	감상용 행진곡 예술가곡 농악 독주곡	감상용 예술가 곡 교향곡 론도 변주곡 농악 가 야금 악곡

검토함에는 3-6학년만으로 제한하여 실행하여 보았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구체적인 내용 항목과 교과서의 내용의 대비에서 나타난 결과는 항목상으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대부분 충실히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몇몇 항목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을 뿐으로 그를 정리하여 보면 앞의 <표 1>과 같다.¹⁵⁾

그러나 그중에는 그 연유는 불분명하나 앞의 학년 교과서에 관련이 있는 소재가 수록된 예가 있다. 즉 5, 6학년의 '주선율과 반주부와의 관계를 감지하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4학년 교과서에 '반주음에 아름다움을 느끼며 부른다'라는 진술이 있다. 그리고 4, 5학년의 '점점느리게의 특징을 감지하여 표현하기'는 6학년에도 나오는데 6학년 교과서의 경우만 '과수원길'에 설명 없이 악보에 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2. 음악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학습내용의 분석

가. 리듬

<제재곡의 리듬구조>

제재곡의 리듬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민음표만으로 구성된 악곡과 점음표만으로 구성된 악곡 그리고 민음표와 쉼표로 구성된 악곡은, 전혀 없는 학년도 있으나, 대체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점음표와 쉼표로 구성된 악곡은 전 학년이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 당김음이 포함된 악곡은 1학년을 제외하고는 학년별 차이는 크나 모두 실려있고 셋잇단음표를 사용한 리듬은 주 제재곡으로는 6학년에 1곡 뿐이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4학년에 당김음에 의한 리듬을 학습하게 되어 있는데 당김음이 포함된 악곡이 1곡뿐이어서 부족하다.

<표 2> 제재곡의 리듬구조

음표사용/학년	1	2	3	4	5	6	계
민음표	6	3	4	2	2		17
민음표+쉼표	5	9	2	1		1	18
점음표	9	6		4	4	1	24
점음표+쉼표	8	12	10	13	8	13	64
당김음		2	5	1	7	5	20
셋잇단음						1	1
계	28	32	21	21	21	21	144

15) 교과서에 있어서 교육과정 내용의 반영도는 부록에 수록한 교육과정의 내용과 <표 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재곡의 박자별 분류〉

제재곡을 박자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2/4박자곡은 1학년에 가장 많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현저히 줄어들며 3/4박자곡과 4/4박자곡 역시 대체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6/8박자곡은 1학년에는 없고 고학년에서 많아지고 있다. 변박자는 4, 5, 6학년에만 도합 7곡이 수록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5학년에 '2/4, 3/4, 4/4, 6/8박자를 악보에 의하여 표현하며 듣기'로 되어 있고 6학년에 '여러박자의 리듬을 악보에 의하여 표현하며 듣기'로 되어 있는데 5, 6학년의 교과서의 내용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변박자로 된 악곡은 오히려 5학년에 많다. 6학년의 경우는 불규칙박자, 전통음악의 판소리 및 산조장단등 보다 다양한 박자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제재곡의 박자별 분류

박자/학년	1	2	3	4	5	6	계
2/4	14	11	8	5	1	1	40
3/4	8	9	4	5	3	4	33
4/4	6	11	7	7	5	5	41
6/8		1	2	3	8	9	23
변박				2/4→4/4	2/4→4/4 3/4→4/4 2/4→4/4 2/4→4/4	4/4→2/4 6/8→2/4	7
계	28	32	21	21	21	21	144

나. 가락

〈제재곡의 조성별 분류〉

제재곡을 각 조성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장조로 된 악곡이 120곡, 단조로 된 악곡이 7곡, 우리나라 민속조 악곡이 17곡으로 장조로 된 악곡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장조 악곡은 66곡으로 가장 많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바장조 악곡은 33곡으로 곡수의 차이는 심하나 전학년에 실려 있다. 그 외의 조성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극히 적으며 대체로 고학년에서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요와 전래동요는 1학년 1곡을 제외하고는 전학년에 고루 실려

있다.

교육과정에는 바장조의 경우 5, 6학년에 모두 ‘바장조의 가락을 악보에 의하여 표현하기’로 되어 있는데, 악곡은 5학년에 7곡이 수록된데 비하여 그 심화단계라 할 수 있는 6학년에는 2곡만이 수록되어 있어 그 균형에 문제점을 보인다. 사장조 악곡은 6학년의 ‘사장조의 가락을 악보에 의하여 표현하기’에 따라 6학년에 7곡이 있으나 5학년에는 없는데 5학년 과정에서 ‘듣고부르기’를 위한 사장조 제재곡이 몇곡이라도 실려있어야 단계적인 학습지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단조의 경우를 보면 5, 6학년에는 ‘가단조의 가락을 악보에 의하여 표현하기’로 되어 있는데 가단조의 가락이 전학년을 통하여 3곡밖에 실려 있지 않아 ‘장조의 악보에 의한 학습’을 위한 제재곡 수록의 수에 비하여 매우 불균형한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악곡의 구성에도 그에 따른 성격과 정서가 있다고 본다면 그 밖의 음계를 사용한 악곡도 수록이 되어 경험의 확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 전래동요도 새로운 발굴이 활발히 이루어져 보다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제재곡의 조성별 분류

조성/학년	1	2	3	4	5	6	계
다 장 조	18	18	12	10	5	3	66
바 장 조	7	11	3	3	7	2	33
사 장 조	1		2	3		7	13
내 립 나					1		1
내 립 마					3	4	7
라 장 조							
가 장 조							
가 단 조	1				1	1	3
다 단 조						1	1
마 단 조			1				1
라 단 조				1	1		2
민 속 조	1	3	3	4	3	3	17
계	28	32	21	21	21	21	144

〈제재곡의 음역〉

제재곡의 음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1, 2학년은 b-d", 3, 4학년은 b-e", 5, 6학년은 bb-e"로써 단계적으로 위와 아래로 폭이 넓어지고 있으나 그 폭은 매우 완만하다.

〈표 5〉 제재곡의 음역

음역\학년	1	2	3	4	5	6	계
c'-g'		1					1
c'-a'	8	2					10
c'-c"	8	16	9	6	3	1	43
e'-d"	3		1	1	1		6
d'-d"	2		1	1		1	5
c'-d"	5	9	3	4	7	2	30
b-a'	(1)						(1)
f'-a'	1	1					2
b-g'		(1)					(1)
f'-c"		1					1
d'-b'		1					1
b-d"			2	3		1	6
b-c"			2	3			7
d' #-c"			1		2		1
e'-c"			1	1		1	3
c'-e"			1				2
d'-e"				1	1	2	4
e'-b'				1	1		1
bb-b"b						3	7
e-e"					4	1	2
c-e"b					1	1	2
b-e"					1	5	5
d-c"						1	1
a-d"						2	2
a-e"						1	1
계	28	32	21	21	21	21	144

1, 2학년의 제재곡중 19곡이 가장 높은 소리가 d"음인데 이는 아동의 성장발달로 볼 때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 6학년의 경우는 그간의 음악적 기능의 성장 폭에 비추어 볼때 f"-g"까지의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곡을 실어서 더 넓은 음역을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화음

〈제재곡의 형태별 분류〉

제재곡을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표 6〉과 같다. 전학년을 통하여 합창곡은 2부합창곡이 20곡, 3부합창곡은 5곡이 그리고 돌림노래는 8곡이 수록되어 있다. 2부합창곡은 3학년부터 나오며 3부합창곡은 6학년에만 있다. 돌림노래는 2학년에서 5학년까지 실려 있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5학년 교과서에도 2부합창과 3부합창이 실려야 하는데 전혀 수록되지 않고 있다. 6학년의 경우는 2부합창이 7곡인데 비해 3부합창이 1곡으로 매우 부족하다. 4학년의 경우 돌림노래도 1곡뿐으로 부족한 감이 있다.

〈표 6〉 제재곡의 형태별 분류

형태\학년	1	2	3	4	5	6	계
부 분 2 부			2	3	4	1	10
2 부				3		7	10
부 분 3 부						4	4
3 부						1	1
돌 림 노 래		1	3	1	3		8
제 창	28	31	16	14	14	8	111
계	28	32	21	21	21	21	144

〈마침꼐 합창의 주요3화음에 관한 내용〉

마침꼐합창과 주요3화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3학년에서 다장조의 주요3화음에 의한 펼친 화음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6학년까지 다, 바, 사장조 및 가단조의 3화음에 의한 마침꼐 합창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3, 4, 5학년까지는 대체로 그에 맞추어 배열되었으나 6학년에서는 바장조와 사장조의 마침꼐 합창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요3화음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보아 대체로 학년간의 계열성을 지니며 조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마침꼴합창과 주요3화음과 내용 분포

내 용 \ 학 년	3	4	5	6
〈마 침 꼴 합 창〉				
다 장 조	0	0	0	0
바 장 조			0	
가 단 조				0
사 장 조				
〈주 요 3 화 음〉				
다 장 조		0		0
바 장 조			0	0
가 단 조				0
사 장 조				0

라. 형식

〈제제곡의 형식별 분류〉

가창제제곡을 형식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8〉과 같다. 한도막 형식의 악곡은 1, 2학년에 월등히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든다. 작은세도막과 두도막 형식의 곡은 곡수에는 다소 차이가 크나 전학년에 모두 나오며 세도막 형식의 곡은 2학년의 1곡을 제하고는 모두 5, 6학년에만 있다.

전반적인 분포를 보면 저학년에는 한도막 형식 중학년에는 두도막형식 고학년에는 두도막과 세도막 형식의 곡에 비중을 두어 조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난이도 면에서 볼 때 학년간의 차이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제제곡의 형식별 분류

형식\학년	1	2	3	4	5	6	계
한 도 막	23	14	7	3	3	2	52
작은세도막	2	7	2	6	1	4	22
두 도 막	3	9	11	11	7	9	50
세 도 막		1			4	3	8
기 타 노 래		1	1	1	6	3	12
계	28	32	21	21	21	21	144

〈형식에 관한 내용〉

형식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총 14회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오며 5학년에 가장 많다. 내용별로 보면 감상제재곡에서 5회로 가장 많으며 가창활동, 제재곡의 리듬이나 가락, 가락의 짜임새, 큰악절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학년간의 제시된 상황을 보면 3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6학년은 두도막형식, 세도막형식, 코다, 간주등 보다 확대된 학습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9〉 형식에 관한 내용 수

지 도 내 용 \ 학 년	1	2	3	4	5	6	계
감상곡 가락의 흐름그림			1	1	1		3
감상곡의 느낌이 바뀌는 부분			1		1		2
리듬의 반복 감지			1				1
가락의 짜임새				3		1	4
짧은 리듬과 가락 감지					1		1
동기 작은 악절 큰 악절					1		1
첫째 작은 악절과 둘째 작은 악절과의 다른점					2		2
회 수			3	4	6	1	14

마. 빠르기

〈제재곡의 빠르기〉

제재곡의 빠르기 표시를 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빠르기 표시는 1,2학년의 곡에는 전혀 없고 3학년에서는 2곡에 나온다. 4학년부터는 대부분 표시되었고 없는 경우도 모두 별도의 악상 표시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 빠르기’가 31곡으로 제일 많고 ‘조금 빠르게’가 13곡, ‘조금 느리게’가 9곡의 순으로 나오며 그외는 모두 1-3곡 정도이고 ‘빠르게’ 곡은 없다.

빠르기 표시는 고학년에서만 다루고자 하는 면이 나타나는데 저학년에서도 악곡이 지니는 고유의 빠르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빠르기 개념이 아닌 것은 가창안내문에 포함시켜 일관성 있는 빠르기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전통음악을 포함하여 모든 빠르기 개념은 악곡의 특성에 따른 알맞는 속도를 메트로놈으로 표시하여 지도 교사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빠르기에 따른 악곡의 안배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0〉

제재곡의 빠르기

빠르기\학년	1	2	3	4	5	6	계
보통 빠르게				11	10	10	31
조금 느리게				3	3	3	9
조금 빠르게			2	5	4	2	13
빠르게							
느리게						1	1
세마치				1	1		2
굿거리					1	2	3
자진모리						1	1
민요풍으로					1		1
홍접게				1			1
씩씩하게					1		1
힘차게						1	1
고요하게						1	1
없음	28	32	19				79
계	28	32	21	21	21	21	144

바. 셈여림

〈제재곡의 셈여림〉

제재곡의 셈여림 표시를 보면 〈표 11〉과 같다. 1, 2학년의 곡에는 전혀 없고 3-6학년에서 총 32곡에 표시되어 있는데 고학년에 월등히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학년의 표시된 기호의 종류는 고학년으로 가면서 한두가지가 더 첨가되고 있다. 그리고 4학년에는 셈여림 기호의 도표가 제시되고 있다.

〈표 10〉

제재곡의 빠르기

구분\학년	1	2	3	4	5	6	계
표시안된곡	28	32	19	15	9	9	112
표시된곡			2	6	12	12	32
사용된기호			mp, mf f, 	mp, mf f, p 	mp, mf f, p, > 	mp, mf f, p, > 	
계	28	32	21	21	21	21	144

전반적으로 볼 때는 고학년에서 다루고자 하는 면이 나타나며 1, 2학년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1, 2학년의 경우는 대체로 문자를 터득하는 단계임으로 부호, 그것도 특히 외국어로 된 것을 사용함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셈여림에 관한내용에서 언급하듯이 다른방법의 지도내용도 전혀 없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셈여림에 관한 내용〉

셈여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셈여림에 관한 내용

3 학 년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4박자의 셈여림 p. 11	셈여림의 변화를 바 르게 표현한다. p. 7	알맞게 셈여림을 표 현해보자 p. 5	셈여림의 변화를 살 려서 함창하기 p. 9
2박자의 셈여림 p. 15	셈여림을 살려서 부 른다. p. 17	알맞게 셈여림을 표 현해보자 p. 13	‘굿거리장단’에 >표 p. 12
알맞은 세여림 p. 20	셈여림 도표p. 17	셈여림에 유의하여 들어보자 p. 17	셈여림에 유의하여 듣기 p. 27
3박자의 셈여림 p. 47		악곡에 어울리도록 셈여림 표현하기 p. 29	6박자의 셈여림 p. 33
셈여림표에 따라 독 창을 해보자 p. 48		셈여림에 유의하여 감상해 보자 p. 27	‘굿거리장단’에 >표 p. 34
		셈여림을 주의 깊게 들어보자 p. 27	창작시 셈여림 생각 하기 p. 39
		‘굿거리장단’에 >표 p. 34	
5회	3회	7회	8회

셈여림 학습내용은 1, 2학년은 전혀 없으며 가장 적은 4학년이 3회이고 가장 많은 6학년이 8회로 학년간의 차이가 크다. 그리고 6학년의 경우 리듬합주곡 창작에서 셈여

림을 생각하여 표현해 보도록 하는 학습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같이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강약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1, 2학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호의 사용은 적절치 못하나 썸여림은 아동의 음악적 개념의 형성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실행이 가능한 체험적 방법을 통하여 저학년에서부터 학습되어야 할 것이다.¹⁶⁾

사. 음색

〈제재곡의 음색 내용〉

가창 및 기악 학습을 위한 제재곡의 연주에서 경험하도록 안내된 음색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전학년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음색의 종류는 음성과 더불어 리듬악기가 6종, 가락악기 5종, 신체를 이용한 소리가 3종으로 총 15종이다. 1학년에서는 음성 및 신체음 그리고 리듬악기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가락악기가 첨가되고 있다.

〈표 13〉 가창 및 기악 제재곡의 음색

음 색 \ 학 년		1	2	3	4	5	6
음	성	0	0	0	0	0	0
큰	북	0	0	0	0		
작	은 북	0	0	0	0		
캐	스 터 네 츠	0	0	0	0		
탬	버 린	0	0	0	0	0	
트	라 이 앙 글	0	0	0	0		
심	벌 즈	0	0	0	0		
손	뽕	0	0	0		0	
발	구 르 기	0	0		0	0	
실	로 폰		0	0	0	0	
멜	로 디 언			0	0	0	0
오	르 간			0	0	0	0
리	코 더			0		0	0
피	아 노					0	0
무	릎 치 기					0	

16) 피아제(Piaget)의 보존의 원리에 근거한 마르린 짐메르만(Marilyn Zimmerman)의 연구는 아동의 음악적 개념이 썸여림, 음색, 빠르기, 음길이, 음높이, 화음 등의 순으로 형성됨을 밝히고 있다(이흥수(1990), p. 75. 참조).

그러나 특히 악기의 경우는 악기마다 독특한 음색을 지니며 그것은 기악 또는 합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악기의 종류를 확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래 음악교육에서 주목되고 있는 현대 음악의 이해라는 면에서 보면 예컨대 전자음과 같은 새로이 개발되는 악기음의 경험도 필요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음색에 관한 내용〉

음색에 관한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음색에 관한 내용은 1, 2학년 통합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으며 3-6학년에서만 나온다. 총 22건 중 기악과 감상 학습을 통하여 ‘음색의 어울림과 아름다움을 듣고 느끼기’가 13회, 악기를 위시하여 사물의 소리나 인성 등 여러가지 소리를 들어보기가 8회, 그리고 음색에 맞는 악기 정하기가 1회이다.

〈표 14〉 음색에 관한 내용

내 용 \ 학 년	3	4	5	6	계
음색의 어울림과 아름다움을 느끼기	5	2	3	3	13
〈악기〉의 재료 및 들어보기	2	1			3
〈악기〉의 재료 및 음색 소재			1		1
〈악기〉이외의 소리를 들어보기	2				2
변성기의 성대의 변화			1		1
인성의 음색듣기				1	1
음색에 맞는 〈악기〉정하기				1	1
회 수	9	3	5	5	22

음색은 아동의 음악적 개념의 형성에서 비교적 일찍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저학년에 서부터 그에 관한 학습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¹⁷⁾

3학년의 경우 악기이외의 소리에 대한 탐색활동으로 시계소리, 귀여운 동물의 소리를 내보거나 생각해 보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주변에서 일찍부터 접할 수 있는 소리는 음색학습의 경우 대체로 처음 단계의 학습소재가 되는 것으로 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다. 변성기 성대의 변화, 음성의 특색 감지, 음색에 맞는 악기 선택에 대한 내용은 5, 6학년을 통하여 한번씩 제시되고 있으나 매우 부족한 감이 있다. 그리고 악기의 크기에 따른 음색이나 각민족의 고유악기의 독특한 음색, 반주음악을 위한 악기

17) 주 16)과 같음

의 음색, 음성의 특색에 따른 종류등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조직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3. 음악의 표현 및 감상에 관한 학습내용의 분석

가. 고유개념별 학습내용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교사용 지도서의 차시별 지도내용을 참고로 하여 그 학습의 중심이 되는 고유개념별로 대비하여 보면 다음 <표 15>와 같다. 그 나타난 개념간의 비례를 보면 전학년이 모두 가창과 기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작과 감상은 상대적으로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5학년의 창작부분과 1, 2학년의 감상부분은 두드러지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고유개념간의 비율

단위(%)

영역 \ 학년	1	2	3	4	5	6
가창	55.3	63.0	44.4	44.4	39.7	41.3
기악	35.7	31.3	30.2	33.3	39.7	27.0
창작			14.3	12.7	7.9	20.6
감상	8.9	6.3	11.1	11.1	12.7	11.1

나. 가창

<가창 제재곡이 국적별 분류>

가창 제재곡을 국적별로 분류하여 다음 <표 16>과 같다. 그 분포비율을 보면 국내곡이 81%이며 외국곡이 19%로 국내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곡 중에는 13%가 전래동요와 민요이다.

<표 16> 국적별 가창곡

국별 \ 학년	1	2	3	4	5	6	계	%
국내곡	26	26	16	17	16	16	117	81
(전래동요)	(1)	(3)	(2)	(1)	(1)	(1)		
(민요)				(2)	(2)	(2)	(15)	(13)
국외곡	2	6	5	4	5	5	27	19
계	28	32	21	21	21	21	144	100

전반적으로 볼 때 현대의 국내곡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물론 국민교육의 측면에서는 국내곡이 중심을 이루어야 마땅하나 또한 여러나라 음악의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는 현대의 음악교육의 사조에서 보면 다소 국내곡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가창 제재곡의 주제별 분류〉

가창 제재곡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17〉와 같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간의 생활 또는 감정에 관한 것과 자연에 관한 것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와 계절 및 자연의 아름다움, 바른생활에 관한 것이 많은 편이다.

〈표 17〉 가창곡의 가사주제별 빈도수

주제내용 \ 학 년	1	2	3	4	5	6	계
〈자연〉							〈59〉
식물		1	1	2	3	2	9
동물	1	2	2	4	2	1	12
계절	6	3	4	2	2	3	20
시간			1				1
자연의 아름다움	3	2	4	1	3	4	17
(현상기상)							
〈인간과 생활〉							〈53〉
사람	1	2			2		5
놀이	9	12	5	3	2	2	35
명절	1			1			2
바른 생활	3	3	2	3	1	1	13
(예절 교육 애국)							
〈인정〉							〈23〉
고향				1	2	2	5
우정		1					1
추억 기 다 림			1			2	3
소망 희망 행복	2	2		1	3	3	11
희노애락	1			1		1	3
〈기타〉							〈8〉
생활 용 품	1	4	1		1	1	7
지명				1			1
계	28	32	21	21	21	21	144

각 주제의 학년별 분포는 대체로 고른 편이나 놀이에 관한 것은 저학년에 많고 인정에 관한 것은 고학년에 많다. 특히 놀이와 계절 및 자연현상, 바른생활에 관한 것이 많음은 대체로 1, 2학년의 통합 교과로의 운영과 전학년에 걸친 제재곡의 계절성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 배열, 그리고 일반적인 음악외적 교육목표의 작용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기악

〈기악합주악보의 가창악보에 대한 비율〉

가창과 기악을 위한 악보의 학년별 분포를 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가창만을 위한 악보는 88곡으로 전체의 61%에 해당하고 가창곡에 기악연주를 더한 곡과 합주를 위한 악보를 합하여 보면 56곡으로 39%에 해당된다.

대체로 저학년은 가창과 기악을 병행하여 지도할 수 있는 악보제시가 많으며 고학년으로 갈 수록 적다. 그러나 ‘즐거운 노래와 합주’에 제시된 악곡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악교육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18〉 가창악보와 기악합주악보의 비율

내 용 \ 학 년	1	2	3	4	5	6	계
가 창 악 보	11	15	16	16	16	18	88 (61%)
기 악 합 주 악 보 (가 창 곡 + 기 악)	17	17	9	5	5	3	56 (39%)
‘즐 거 운 노 래 와 합주’의 기악합주			4	7	4	6	참 고

라. 창작

〈창작에 관한 내용〉

창작내용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창작학습을 위한 활동내용은 3, 4, 6학년의 경우 각기 12회인데 비해 5학년은 5회로써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점은 창작학습을 위한 학년간의 계열 체계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학년의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그 난이도면에 있어서도 4학년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민속풍의 가락을 포함하여 가사에 의한 한도막 형식의 가락짓기’를 학습하는 6학년의 전단계로서의 학습내용으로도 매우 미흡한 감이 있다. 그리고 1, 2학년의 경우 전혀 나오지 않는데 대체로 창작이 지닌 난이도를

고려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구조적 접근법의 논리에 따르자면 저학년부터 실행이 가능한 즉흥적인 또는 체험적인 방법을 통한 예비적 단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19〉

창작 지도내용

3 학 년	4 학 년	5 학 년	6 학 년
가사 찾아적기(2/4) 리듬 듣고 가리기 (4/4 1마디) 리듬 이어서 리듬 만들 어치기(4/4 24마디) 가사에 어울리는 리 듬 만들어치기(2/4) 말에 어울리는 리듬 만들어 읽기 악보적기(음표 쉼표 높은음자리표 세로 줄) 리듬 듣고이어적기 (2/4 4/4 2마디) 가락 만들어 부르기 (4/4) 말에 어울리는 가락 지어부르기 리듬 듣고적기 (4/4 2마디) 리듬 만들어 읽고치 기(2/4 3/4 4/4) 말에 어울리는 가락 지어부르기	접리듬 만들어치기 (3/4) 리듬에 가사붙이 기(3/4) 리듬 듣고적기 (3/4 2마디) 리듬 듣고적기 (4/4 2마디) 가락 듣고 적기 (4/4) 리듬 짓기(2/4 4/4 2마디) 세로줄과 겹세로줄 긋기 (3/4 4/4) 노랫말로 가락지어 부르기 리듬을 지어보자 (3/4) 가락 듣고적기(3/4) 계속되는 느낌 끝나 는 느낌의 가락을 지 어보자(4/4 2마디) 가사에 맞는 가락 짓 기(4/4 2마디)	가락 듣고적기 (3/4 4/4) 도미솔 3음을 이용하 여 가락짓기 (2/2 2마디) 리듬 가락 듣고 가리 기(6/8 제재곡) 제재곡의 리듬 외어 적기(6/8 3마디) 리듬 듣고 적기 (6/8)	가락 듣고적기(4/4) 리듬에 말로 가사적 기(2/4 제재곡) 가단조 가락 듣고 가 리기(6/8) 가락 만들어부르기 (6/8 8마디) 이어지는 가락짓기(4 /4 3/4 8마디 완성) 접리듬 만들기(6/8) 리듬 만들어치기(6/ 8 2/4) 1도막형식의 가락 짓 기(3/4 6/8) 리듬합주곡 만들기 가락 짓기 지도설명 리듬 짓기(6/8 1도 막) 가사로 가락 짓기
12회	12회	5회	12회

마. 감상

〈감상곡의 국적별 분류〉

감상 학습을 위한 제재곡을 국적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 20〉과 같다. 우리나라를 제

외하면 총 14개국의 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를 다시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22곡, 아시아가 18곡, 북아메리카가 2곡이며 그 밖의 대륙은 없다.

그런데 아시아의 경우는 우리나라 곡이 17곡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외국곡의 경우 극심한 유럽 편중현상을 보인다. 대체로 이러한 현상은 종래 우리의 음악교육이 서양 근대음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모든 음악의 이해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포괄적인 음악교육의 경향과는 부합되지 않는 편성이다.

〈표 20〉 국가별 감상곡 분포

국 가 / 학 년	1	2	3	4	5	6	계
〈아 시 아〉	(2)	(2)	(3)	(4)	(4)	(3)	(18)
한 국	2	2	3	4	3	3	17
중 국					1		1
〈유 럽〉	(3)	(3)	(4)	(4)	(4)	(4)	(22)
오 스 트 리 아			1	2	3		6
독 일	2	1	1				4
프 랑 스			1			2	3
형 가 리	1						1
벨 기 에		1					1
스 웨 덴		1					1
체코슬로바키아			1				1
스 코틀랜드				1			1
이 타 리 아				1			1
러 시 아					1		1
스 위 스						1	1
〈남 아 메 리 카〉							
〈북 아 메 리 카〉					(1)	(1)	(2)
미 국					1		1
멕시코						1	1
〈기 타〉	(1)						(1)
계	6	5	7	8	9	8	43

〈감상 제재곡의 시대별 분류〉

감상제재곡중 서양 악곡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21〉과 같다. 민요를 제외하고는 모든 곡이 하이든(1732-1809)에서 요나손(1886-1956)에 이르는 주로 18

세기에서 20세기초까지의 고전파 낭만파 근대 음악가의 작품이며 그중 낭만파의 음악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곡의 경우는 농악과 민요 잡가의 아악등 전통 음악이다. (〈표 22〉 참조)

따라서 감상곡의 경우 거의 서양근대의 음악과 우리의 전통음악으로 편성되어 있는 셈인데 오늘날의 음악교육의 경향과는 거리감이 크다. 특히 20세기에 이르러 새로운 대중적 음악 또는 전자음악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대음악에 대한 경험이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서양 감상 제재곡의 시대별 분류

시대 \ 학년	1	2	3	4	5	6	계
고 전 파		1		1	2		4
낭 만 파	2		3	1	2	3	11
근 대	1	2	1				4
기 타	1						1

〈전통음악 감상곡의 연주형태별 분류〉

우리나라 전통음악 감상곡을 연주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표 22〉와 같다. 감상곡 17곡중 민요가 9곡으로 가장 많고 관악 3곡, 농악 2곡, 가야금 병창, 판소리, 관현악이 각각 1곡이다. 성악곡은 11곡 기악곡이 6곡으로 성악곡이 많다.

〈표 22〉 전통음악 감상곡의 연주형태별 분류

연주형태\학년	1	2	3	4	5	6	계
농 악			2				2
민 요	2	2	1	2	1	1	9
잡 가				1			1
판 소 리						1	1
산 조						1	1
아 악				1	2	1	4
- 관현합주					(1)		(1)
- 관 악				(1)	(1)	(1)	(3)
계	2	2	3	4	3	4	17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여러가지 연주형태별 감상기회의 폭을 확대시켜 산조, 무악, 범패, 제례악, 가악(시조, 가사, 가곡)등의 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서양음악 감상곡의 연주형태별 분류〉

서양음악 감상곡을 연주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 〈표 23〉과 같다. 감상곡 24곡 중 기악곡이 20곡 성악곡이 4곡으로 기악곡을 주로 감상하도록 되어 있다. 성악곡의 경우는 다른나라의 민요를 단음이나 2부로 편성된 악보를 제시하고 있다. 기악곡은 주로 관현악곡이 많으며 독주곡의 경우도 관현악으로 편곡된 곡이 많다.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아동들은 대부분 관현악곡으로 된 감상곡을 감상하게 된다. 바람직한 감상 학습을 위하여는 독창, 중창, 돌림노래 등과 중주 합주 등 다양한 연주형태의 성악곡과 기악곡들을 선정 자료화하여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23〉 전통음악 감상곡의 연주형태별 분류

연주형태\학년	1	2	3	4	5	6	계
〈성 악〉							
합창				1		1	2
제창				1	1		2
〈기 악〉							
독주		2	2			1	5
합주							
— 현 악					1		1
— 관 현 악	3	1	2	2	3	2	13
기타	1						
계	3	3	4	4	5	4	23

〈음악가 소개〉

음악가 소개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우리나라 음악가는 제제곡에 관계없이 6학년에서 7명이 소개되었고 감상곡과 함께 소개된 외국 작곡가는 13명이며 1, 2학년 감상곡에는 작곡가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 가창제제곡의 경우는 작사자 작곡가가 거의 명시되어 있어 작곡자 작사자에 대하여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곡과 국내곡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음악가의 경우 모두 작곡, 작사자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유명한 지휘자나 연주가도 소개되어 음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상일지 쓰기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음악가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개내용\학년	3	4	5	6
〈우리나라〉 이름 사진 설명 이름 설명				홍난파 현제명 윤극영 이흥렬 박 연
〈외국 감상곡〉 곡명 이름 사진 설명 곡명 이름 사진 곡명 이름	드보르작 슈베르트 비제 오르트	하이든 슈베르트	모차르트 하이든 차이코프스키 주페	생상스 브람스 비제

IV. 결 론

이상으로 오늘날 음악교육의 중심사조인 포괄적 음악교육의 이론적 기초 위에서 현행 국민학교 음악과 교과서를 내용의 선정 및 조직성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분석 검토하여 보았다. 그 구체적인 검토는 음악의 구성요소 및 표현 감상의 영역과 관련하여 주로 제제곡과 학습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실행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교과서의 기본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대비하여 볼 때 몇가지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나 전반적으로는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선정과 구성면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그를 열거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의 구성요소를 학습하기 위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계열성 균형성 체계성에 문제점이 나타난다. 대체로 계열성과 난이도에 따른 제제곡 중심으로 조직되는 현행 교과서 체제에서 오는 현상으로 그에 따른 내용조직의 방안이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표현 및 감상 학습을 위한 가창, 기악, 창작, 감상 영역의 학습내용은 가창과

기악에 편중되어 있고 창작과 감상 영역은 학년에 따라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영역별 학습내용의 재조정이 요청된다.

세째, 전학년에 걸쳐 학년간 균형과 계열성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5학년의 경우 창작부분이 내용면에서 크게 부족하고 전후 학년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년간의 연계에 대한 배려가 요청된다.

네째, 1, 2학년의 경우 통합교과 운영으로 기초학습에 한계가 주어져서 상급학년으로의 연계에 문제가 제기되며 특히 기초부분이 3학년에 집중되어 과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 2학년의 지도내용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포괄적 음악교육의 시각에서 볼 때 제 학습 요소에 관한 소재의 확장과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모든 시대 및 지역의 음악의 광범위한 제시, 현대음악과 여러민족의 고유음악에 내포된 다양한 음악요소의 제시등이 요청된다.

끝으로 본고의 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상정되는 점을 제언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포괄적 음악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첫째, 전학년에 걸치는 학습내용의 구조적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청되며 둘째, 교과서의 외연을 이루는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과 구비가 시급하며 세째, 모든 음악이 반영될 수 있는 그에 대한 교재화의 연구가 요청된다. 네째, 확대되고 심화되는 음악교육을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교사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리나(1982), “MMCP의 원리와 학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면세(1986), “한·일·중 음악과 교재분석에 따른 지도방향 탐색 - 국민학교 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 「공주교대논총」 제22권 제1호, pp. 279-295, 공주교육대학.
- 김상태(1986), 「음악미학」,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김혜경(1978), “중학교 음악교과서에 관한 연구 - 중학교 2학년 가창부분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나운영(1979), 「대학음악통론」, 서울: 세광출판사
- 문교부(1987),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_____ (1987),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문교부
- _____ (1989), 「즐거운 생활」 1-1,2 2-1,2 서울: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8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즐거운 생활」 1-1,2 2-1,2 서울: 국정교과
서주식회사

- _____ (1989), 「음악」 3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8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0),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0), 「음악」 4, 5, 6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0),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4, 5, 6 서울 : 국정교과서주식회사
- 머셀, 제임스 L., 「음악적 성장을 위한 교육」, 음악교재연구회(역)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6.
- 밀러, 휴 M., 「국민학교 음악과 수업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 교육개발원연구원.
- _____ (1986), 「국민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동향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88), 「음악과 교육론」, 서울 : 갑을출판사.
- 안미자 : (1986), “음악교육 개선을 위한 세가지 시도 -Yale Seminar, Tanglewood Symposium, Rockefeller Panel을 중심으로-”, 「논총」 제51집, pp. 111-129,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_____ (1988), “기술사회에서의 음악교육의 역할”, 「논총」 제53집, pp. 311-32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유덕희(1983), 「음악교육론」, 서울 : 개문사.
- _____ (1983), 「세계 음악 교육사」, 서울 : 학문사
- 유 원(1985), “음악과 교육에서 전통교육의 문제”, 「논문집」 제25집, pp. 189-206, 춘천교육대학.
- 이강숙(1978), “포괄적 음악교육의 개념”, 「세계의 문학」 제3권 제4호, pp. 30-44.
- _____ (1980), 「열린 음악의 세계」, 서울 : 도서출판 은애.
- 이귀윤(1983), 「교육연구-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 이연희(1987), “한국 학교 음악교육의 역사적 배경”, 「논문집」 제20집, pp. 377-399, 서울교육대학.
- 이흥수(1988), “국민학교 교과서 내용의 변천 및 개선 방안 탐색”, 「음악 교육연구」 제7집, pp. 3-22.
- _____ (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 이흥우(1977), 「교육과정연구」, 서울 : 박영사.
- _____ (1979), 「지식의 구조와 교과」, 서울 : 박영사.
- 장사훈, 한만영(1975), 「국악개론」, 서울 : 한국국악학회.
- 전민자(1974), “중학교 음악교과서 분석”, 이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정세문(1964), 「음악감상교육」, 서울 : 문영문화사.
- _____ (1986), 「음악과 학습지도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_____ (1987), 「음악과 학습지도」, 서울 : 창지사
- _____ (1987), “음악과”,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 교육과학사, pp. 301-331.
- 최시원(1987), “미국 음악교육의 변화와 새로운 동향”, 「연세논총」 제23집, pp. 159-177.
- 한국교육개발원(1979), 「교과서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 제109집)
- _____ (1980),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1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85), 「국민학교 음악과 수업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교사용 새수업방법 시범자료 음악 3, 4학년」,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호퍼, 찰스 R., 「음악교육론」, 안미자(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4.
- 홍정수(1986), 「미학적 음악론」, 서울 : 정음문화사.
- Gall, Meredith Damien(1981), *Handbook For Evaluating and Selecting Curriculum Materials*, Boston : Allyn and Bacon, INC.

ABSTRACT

An Analysis of Music Text Book for Korea Elementary School

Kim, Joung Soon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he music education a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music textbook of the elementary school, to review the guideline of the review for the music textbook an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of the music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data was analyzed based upon the spiral and conceptual approach to the music teaching and concept of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by framing lesson units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musical elements and activities.

The result may be elements and activities.

1. Most of the contents of the music textbook was well structured according to the current curriculum of the music.
2. The conceptual elements of the textbook is not well structured.
3. Singing and playing instruments are too much emphasized in the textbook.
4. The appreciation and the activities in the textbook are not evenly structured in the elementary school.
5. Resulting from the integrated curriculum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the basic contents of the music curriculum are too much offered in the third year grade.
6. Teaching materials of the textbook of the music need to be developed widely and deeply for the teaching of music of all types, forms, styles, periods and cultures.